

대부분의 잠언(箴言)은 "종교적" 계시와 관련이 없다.

- ◆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10:1-2).
- ◆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12:23).
- ◆ 체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18:18).
- ◆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 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20:14, 표준새번역).
- ◆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20:16, 표준새번역).
- ◆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26:17).
- ◆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옴이니라(25:6-7//눅 14:10).

잠언이 가르치는 바가 세 가지, 그 종류가 네 가지 있으니...

네 가지 종류

1. 하모~하모!

- ◆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10:13; cf. 15:18).
- ◆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체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13:7).
- ◆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14:4).
-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할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15:1).
- ◆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5:17; cf. 17:1).
- ◆ 허물을 덜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17:9).
- ◆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20:1). 접수!

2. 흠... (찢린다. 왜? 내게 말하고 있으니까)

- ◆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12:16; cf. 14:29; 16:32).
- ◆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13:8).
- ◆ 옷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14:13).
- ◆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14:20; cf. 19:4, 7).
- ◆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15:22).
- ◆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18:2).
- ◆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데로 내려가느니라(18:8//26:22)
- ◆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18:13).
- ◆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피로와 하느니라(19:24).
- ◆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23:13, 표준새번역).
- ◆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끈뎀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6:10-11//24:33-34).
- ◆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찌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27:10).

3. @#%\$^*&38*%(^&34~!@*^\$0!

- ◆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11:22).
- ◆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지만 주착없는 아내는 등뼈 갑아 먹는 벌레와 같다(12:4, 공동번역).
- ◆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화가 된다. 아내가 바가지를 끊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19:13//27:15, 공동번역, 21:19=>25:24).
- ◆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기고 매를 맞아야 마음 속이 맑아진다 (20:30, 공동번역 29:15, 17).

4. 오잉?

- ◆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 버리신다(10:3, 공동번역).
- ◆ 의인에게에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에는 양화가 가득하리라(12:21).
- ◆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13:25).
- ◆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15:6, 표준새번역).
- ◆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 (17:8, 공동번역).
- ◆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 속에 넣어 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21:14, 표준새번역).

세 가지 가르침

1. 인간의 자존심 지키기

잠언의 신학/철학은 철저히 인간중심적이다. 비록 1:7과 9:10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지혜의 근본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토라나 예언서에서처럼 여호와를 잠언의 독자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잠언에서는 알지 못하는 하느님을 억지로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하느님은 초월자로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우주의 질서를 통해 추리하고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잠언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전승, 출애굽전승 등의 선민사상이 없다. 하느님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은 우주의 질서이다. 이렇게 하느님을 하느님 되게 하는 태도가 곧 “주(야훼)를 두려워 함”이다. 잠언이 하느님에 대해 논쟁을 피하고 있다면, 인간에 대하여는 인간의 온전함을 요구한다. 잠언의 지혜와 지식은 실질적인 삶의 지혜이니 만큼,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지능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배움을 통해 얻는다. 이 지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후손들의 새로운 경험과 인식에 의해 수정되고 또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잠언의 교훈은 상황윤리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26: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26:5). 판단의 주체는 인간자신이다. 단지 지혜로운 자만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안다.

2. 성공의 길

잠언의 핵심인 지혜는 우주와 인간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내재하는 질서의 개념이며, 이런 의미에서, 잠언이 추구하는 신학은 자연신학이요 창조신학이다. 질서는 규칙성과 연속성에서 발견되며, 이것이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것이 공의, 정의, 공평이라는 도덕적 개념이다(1:2; 2:9). 우주의 질서에 입각한 창조신학이 한편으로 억눌린 피지배계급에게는 평등의 근원인 창조주를 부각시켜 해방의 하느님(출애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에게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한다. 바로 이 후자의 이해가 잠언에 반영되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8:15-16);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16:10);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24:21). 이는 궁전신학의 산물이며, 가부장제도의 부산물이다. 모든 질서/권세/체제/가위로부터 왔은즉, 기존의 체제에 복종하라는 논리이다(=> 롬 13:1-4). 잠언 31장의 “유능한 아내”가 칭찬을 받는 이유 또한 바로 그녀가 기존의 체제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극대화함으로 (무능력한) 남편에게 부와 존귀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잠언의 신학하기는 상류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長壽)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3:16). 부귀영화!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행복은 아니다. 다윗-솔로몬 왕국에서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종교적 예식의 준수(3:9) 및 보수적인 가치관은 잠언 1-9장 전반에 깔려 있으며, 이는 페르시아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상류계급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3. 살아내기.

인생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인생이란 덜어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제대로 산다면, 살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인생의 목적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장수(長壽)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지혜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현자들의 생각에,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장수, 건강, 명예 등 구체적인 삶의 축복을 받는 반면(잠 3:2cf. 솔로몬 지혜서 7:11-12),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는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12:21). 실존의 부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은 보다 비판적 성격을 띤 율기나 전도서에서 볼 수 있다. 잠언은 “내 아들이”라는 호칭이 암시하듯,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그 내용은 친구를 잘 사귀고 여인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는 길 혹은 집 떠나는 아들에게 흔히 줄 수 있는 권고로 쓸데없이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함이다. 죽음과 죄악이 묵시문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말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행실로 정의를 실천할 때 현세에서 가능하다. 살아내기의 시작과 끝은 젊은 날 충동적인 동기에 의해 이런 긍정적인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14:16; 16:32; 19:11; 20:3; 22: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22:3; cf. 27:12).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용기, 호기심, 탐험심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겁쟁이의 도망감이 아니요, 지혜를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아가기 보다는 돌아서 가는 슬기로움이다. 세상풍파를 다 겪은 도인의 행실이 지혜/교훈을 통해 젊은이에게 전해진다.